

# 정부, '국가인권정책' 초안 공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이르면 5월 발표·시행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초안을 공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밝히고 있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문화·교육·노동·인권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고, 전사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는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등 합리화 방안

##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고교 무상교육 추진

## 사형제·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신중 입장

등 최저임금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신설하고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권 경영도 강조했다. 기업은 인권준수 책임을 이행하고 협력회사나 공급회사 등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법률·정책·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사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800명이 형사처벌되고 있는 점 등이 판단 배경이다.

이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하는 방안, 성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트랜스젠더', '성 소수자

등 단어를 표준어국어대사전에 실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형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보다는 남용 방지에 무게를 두는 수준에서 기본방향을 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5월 발표·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안을 두고 접수되는 의견이 많을 경우 6월 이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에 성적 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미흡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뉴스시

## 미얀마 북부서 정부군·카친 반군 전투

이슬람 소수인종 로힝야족의 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이번에는 정부군과 카친족 무장반군 간 전투가 벌어져 4000명 이상이 피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BBC와 AF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매체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미얀마 사무소 마크 커츠 대표를 인용해 지난 3주간 중국 국경에 가까운 북부 카친 주에서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미얀마군은 카친족 무장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공중폭격과 야포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교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안전한 장소로 도망친 피난민 수는 지난 1월 이래 대피한 1만6000명, 2011년 일어난 소수민족 무장세력 카친 독립군(KIA)과 미얀마군 간 대규모 전투 이후 카친 주와 산 주의 수용소로 옮긴 9만명과는 별도로 보고되고 있다.

커츠 대표는 최근 있는 미얀마군과 무장반군 사이의 충돌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분쟁 지역에 대량의 민간인이 아직 오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설명, 실제 피난민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번 전투 외중에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OCHA 측은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이에 관련해선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오리건서 실종된 트럭운전자, 4일뒤 도보귀환

오리건 주의 눈덮인 산악지대에서 나올 전에 GPS운항장치 고장으로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실종되었던 트럭운전자가 28일(현지시간) 수백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라그랜드 부근에서 혼자 걸어서 나타났다.

제이콥 카트리이트(22)는 지난 24일 사라졌으며 이후 헬기 수색을 비롯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고 있던 라그랜드 마을 부근에서 다시 나타났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은 그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라그랜드론드 종합병원의 수석 간호사 데니사 사머트는 말했다. 이는 그가 계속해서 움직였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사머트는 말했다.

카트리이트 소속 운송회사 측은 그가 갑자기 길을 가듯 실은 트럭을 몰고 있던 중 휴대전화 통화가 잘 안되는 지역에서 GPS고장으로 잘못 방향을 꺾는 바람에 트럭이 산악지대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28일 자정이 지나서부터 물도 식량도 없이 걸기 시작했고 어떤 때에는 눈이 쌓인 곳을 통과하기도 했다. 결국 나올 뒤인 28일 아침에는 집이 있는 라그랜드 부근까지 걸어왔으며, 거기서부터는 지나가던 차량을 얻어타고 귀가 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그 동안 실종신고를 내고 이 날도 경찰서에서 수색에 대해 의문을 하고 돌아온 그의 아내에 집에 와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카트리이트는 너무 춥고 온 몸이 아프다고 말해서 부인이 몸을 감싼 뒤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산악지대를 헤매고 있던 기간 중 이 지역의 기온은 밤이면 거의 영하로 내려갔다. 회사의 상사는 카트리이트에게 왜 차에서 떠나면서 갑자기 집을 식량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돈이 나가는 물건이고 내가 운반하던 화물이어서,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 싫었다"고 대답했다.

## 스페인, 집단성폭행범 파주기 선고에 분노

지난 2016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황소 달리기 축제 중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고인 5명에게 팜플로나 법원이 단순 성적 학대(sexual abuse) 혐의를 적용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 9년형을 각각 선고한 것에 대해 스페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전역에서 피고인들에게 단순 성적 학대가 아닌 집단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이날 팜플로나 법원 앞에 모여 "성적 학대가 아니다. 집단 성폭행이다"라고 외쳤다. 경찰은 법원으로 밀고 들어가는 시위대를 저지했으며 시위대와 경찰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팜플로나 법원의 선고 소식을 전해지자 몇 시간도 안 돼 팜플로나는 물론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세비아, 빌바오, 발렌시아, 사라고사 등 스페인 주요 도시들에서 최소 수천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이들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No is no)"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부장적인 사회체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시위대는 혐의의 상징으로 빨간 장갑들을 끼었다.

범인 5명에게 적용된 성적 학대죄는 폭력이나 위협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시

## 흥기로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 징역 22년 선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동기와 함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6시15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5) 씨와 말다툼 중 흥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협박했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육살과 함께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춘정 기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그려요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동역 울림파크공원 피크닉장에서 열린 롯데백화점 제39회 어린이 미술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이명박, 법정 공방 시작... '다스 의혹' 이번주 첫 재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24일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여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31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

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 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및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

뉴스시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